

축산은 공익산업(公益産業), 인류는 몽리공생(蒙利共生)



황영구
분회 고문

인류는 초기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전환하면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주축농업은 백인종이, 식물을 주작목으로 하는 주곡농업(主穀農業)은 유색인종이 주축이 되어서 지역별로 영농형태의 특징을 지닌채 오늘까지 발전하여 왔다. 그와 같은 오랜기간의 영농생활의 변화는 식생활의 유형과 직결되어 백색인종은 육류인 동물성 단백질을 유색인종은 곡류인 식물성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을 영위하여 오는 과정에서 인종간의 육체와 정신 양면의 능력에 차이를 가져오게 하여 지구상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백색인종들이 항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종간의 그러한 현실은 인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야수(野獸), 조류, 곤충류를 포함한 전체 동물계에서도 육식을 하는 동물과 초식을 하는 동물과의 생존경쟁에 있어 강약의 격차는 더욱 현저하다. 그 실례로서 육식을 하는 맹수인 사자, 호랑이는 용맹하고 민첩하며 강하나, 초식을 하는 소나 양은 온순하고 둔감하며 약하다. 유사 이래 축산업이 인류생존의 절대조건으로 인류역사를 창조하면서 인지가 발달하여 민족간에 각기 다른 문자와 말을 사용하게 되면서 축산이라는 용어도 주축농업 국가와 그 민족, 그리고 주곡의 경종농업의 국가와 그 민족간에는 그 목적에 있어서 큰 차이를 시현(示顯)하고 있다.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변함없이 주축농업을 경영하여 오고 있는 민족들은 백인종이다.

그중에서도 영국의 앵글로-색슨 족이 주축농업의 대표격이다. 영국의 국어인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자이다. 영국의 축산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인간생활의 생명이 기초라는 의미의 라이브스톡(Livestock) 이라고 한다. 동북아세아의 몬순(Monsoon)의 영향권 내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의 황색인

종들은 가축을 기르는 축산을 다같이 축산업 또는 목축업이라고 한다. 축산이나 목축의 문자는 검을현(玄)자와 밭전(田)자의 조형문자(造形文字)로 되어 있으며 그 어원의 의미는 전(田)이나 답(畓)과 같은 농경지를 겸고 비옥하게 한다는 뜻으로서 가축의 축력(畜力)을 영농의 수단으로 경운과 운반에 활용하는 외에 가축의 분뇨와 동식물, 미생물간의 상호간에 물질 순환법칙에 의한 농경지의 지력향상과 보존에 대해 주곡과 주축과의 연계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삶을 위한 자연보호의 섭리요, 조화라는 것이다.

자연의 원리와 법칙은 영원하다는 조물주의 창조와 섭리에 따르는 인류생존의 기간산업이요, 의, 식, 주의 공급원인 제1차산업의 농, 축, 임, 수산, 잠업 등 5대 업종은 기초과학의 발달로 창의적인 기술이 향상되어서 그 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었고 또한 품질이 개량·향상되었다고 하여도 최우선의 과제로 의, 식, 주의 식량은 절대적이요, 의류와 주거에 있어서도 그 대부분의 해결을 제1차산업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 영구불멸의 명제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요소로 직결되어 있는 식량생산과 공급 면에서 농토와 깊은 관계가 있는 축산업은 그 생산성이 자연의 섭리와 동물의 생리를 이탈하거나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지배가 역사적으로 무력에서 정치로, 정치에서 과학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동서양의 인류사가 실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무궁한 발전을 기필코 달성하여야 하는 민족문화 창달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정치권이나 행정부 내의 정책입안자들은 능동적으로 정의롭게 인식하고 유구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전망하면서 지속적으로 축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나 행정 또는 식물을 상대로 하는 일부 농학자들과 자학행위를 하는 축산기술자들이 축산의 전통적인 학문과 기술을 유린하여 축산업의 기초업무인 가축의 개량이나 생산성을 저해하는 부도덕한 행위들이 자행되면서 양축농가들의 안정된 경영에 불안과 실망을 가져다주는 한스러운 실상들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축산업은 자연의 분신이요, 우리 인류는 생물이기에 그 원형을 후대로

자연의 원리와 법칙은 영원하다는 조물주의 창조와 섭리에 따르는 의, 식, 주의 식량은 절대적이요, 의류와 주거에 있어서도 그 대부분의 해결을 제1차산업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 영구불멸의 명제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하여야 한다.

무한경쟁시대로의 급속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 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기에 축산인의 목표는 축산업의 공익성과 인류사의 몽리성(蒙利性)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어져야 하는 생존권이다. 사람의 생존권은 상호간에 교환성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체별로 농축산물의 식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종농업의 주곡작물로 식량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고 하며 백색인종들의 주축농업의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생명산업이라는 강한 의미의 '라이브스톡'이라고 한다.

그와 같은 진정한 천(天), 지(地), 인(人)의 철학적인 뜻은 농축산업이 인간생존의 대본이라는 것이다.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문화의 향상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감소한다 하여도 식량생산의 절대성 중 특히 동물성 단백질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장래를 직시할 때 축산업을 천직으로 믿고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양축농가들은 국민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익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정당한 역군이라는 것을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과시하면서 존경받는 성실한 양축농가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근래의 축산업은 가축 등 생산부문이 전 기업 또는 복합경영체로 독립하면서 학문을 기초로 하는 과학적인 실무기술이 양축농민들에게 체질화로 생산성의 제고, 품질의 향상, 수익성의 보장, 환경보전과 축산물의 안전성 보증에 활용되어야 한다. 축산업은 생리적으로 생산과 유통부문으로 양분하면서 고려할 때 생산분야의 실무기술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양축농민의 책임이다. 실무기술은 대별하면 육종번식과 사양관리 부문이다. 특히 유전적인 육종개량인 가축의 등록사업에 의한 기록의 보존과 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화의 파고에서 인류의 역사는 항상 선진국의 제도와 강자의 주장이 승리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요즘과 같이 무한경쟁시대로의 급속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 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기에 축산업에서 우리들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제창하는 바와 같이 종축과 사료의 공급면에서 국제소작농 또는 식민지 축산이라는 불명예를 불식하여서 축산업의 공익성과 인류사의 몽리성(蒙利性)을 확립하는 것이다. ㉞